

김용민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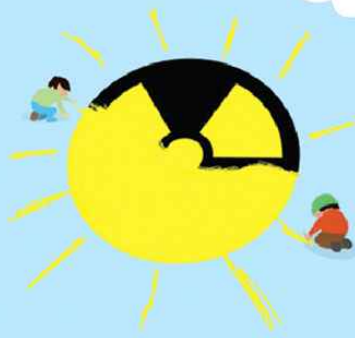
2016년 12월 31일 토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게	1644-9047
대게직거래장터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엠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박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하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1년 전 그리고 1년 후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이렇게 병신년이 가는군요. 딱 1년 전 2015년 12월 31일자 신문 기사를 살펴보고 또 오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년 전.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가 있고 3일이 지났는데 아베가 소녀상 철거를 운운합니다. 1년 후. 소녀상은 부산 일본 영사관에 하나 더 설치됐습니다.

1년 전. 저성과자 해고를 더 쉽게 하려는 정부의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1년 후. 정부 지침은 노동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성격이 다른 어떤 저성과자는 사실상 해고됐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저성과자 말입니다. 1년 전. 백남기 농민이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1년 후. 백남기 농민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원혼이 살아서 연인원 천만의 촛불로 살아났습니다.

1년 전. 대어 투쟁전선에서 단일 대오를 형성해도 승리가 불투명할 야당은 분당됐습니다. 1년 후. 대선에서 단일 대오를 형성해도 승리가 불투명할 여당은 분당됐습니다.

1년 전. 실세 최경환은 경제부총리직을 내놓고 총선 채비 즉 당권 장악을 위해 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는 날개가 달려있는 듯 보였습니다. 1년 후. 그는 인턴 특혜채용으로 곧 소환조사를 받을 상황입니다.

1년 전.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새누리당 38.2, 안철수 신당 18.9, 더불어민주당 16.3%의 지지율이었습니다. 1년 후. 경향신문 조사는 더불어민주당만 40%,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합하면 55%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에서 갈려져 나간 개혁보수신당은 합해도 25%를 못 넘고 있습니다. 상전벽해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될 대변혁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도 안 남은 2016년. 과업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촛불을 태워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의 새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광화문에서 수원역광장에서 부산서면에서 울산삼산동롯데백화점에서 창원시청광장에서 대구중앙로에서 광주금남로에서 전북풍남문광장에서 대전둔산동타임월드에서 청주성안길에서 춘천석사동김진태사무실앞에서 제주시청앞에서 다시 만납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2월 31일(토) 1부 | 황교안 임명한 차관은 블랙리스트 총책

[오프닝] 2015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황교안이 임명한 문체부차관은 '블랙리스트 총괄팀장'

-삼성 고위급 "이재용 지시로 최순실 지원" 진술

-경향 여론조사·국민 83.5% "정권 교체될 것"

-문재인 지지층 결집 상승·반기문 하락세·이재영 담보

-박한철 소장 "탄핵심판 신속한 결론"...헌재, "속도전"

[최동석 칼럼]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왜 권력이 문제일까...조직론 없는 사회의 비참함이란

[김프로이드] 김프로 전 SBS 기자, '씨네마스타' 기획자

-반기문 '22만 달러 수수설'의 진실은?

-"헌재 속도낼 것이다" 또 적중한 김프로 예측

블랙리스트 파문

한겨레 ‘블랙리스트 책임자’가 차관 승진

대통령 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임명했다. 그런데 문체부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송수근 차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총괄 실행한 장본인이라고 한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물러난 정관주 1차관의 자리에 정작 블랙리스트 실행 책임자가 임명된 것이다. 송수근 신임 차관은 2014년 10월부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최순실의 나라

朝鮮日報 “이재용, 최순실 지원 지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순실을 지원하는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대통령 박근혜와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직후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로 삼성 미래전략실 회의가 몇 차례 열렸다는 것이다. 또한 이 회의에는 평소 참석하지 않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참석했다. 박상진 사장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이기도 하다. 박상진 사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 독일로 출국했으며, 최순실 소유의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경향신문 최순실, 특별감찰관도 임명?

최순실이 특별감찰관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나섰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자리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2014년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특별감찰관 후보 명단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특검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특별감찰관 후보 명단을 최순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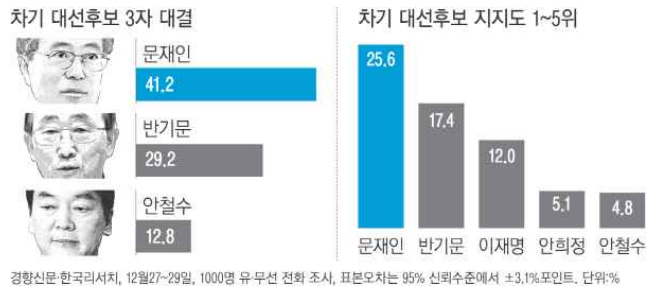
‘벚꽃 대선’ 여론조사

경향신문 국민 83.5% “정권 교체될 것”

경향신문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5%가 정권교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약 26%로 가장 앞섰다. 그 뒤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약 18%,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의 지지율로 ‘1강 2중’의 양상을 보였다.

경향신문 30·40, 90%가 “정권교체 예상”

계속해서 경향신문 여론조사 보도. 세대별로는 30대와 40대는 10명 가운데 9명이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지지자들은 약 93%가 정권교체를 확신하고 있었다. 또한 보수층에도 약 67%가 정권교체를 예상했다. 대선에서 ‘다크호스’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또 조기에 치러질 대선이란 점이 감안된 것 같다.



경향신문 반기문, 총에서도 문재인에 밀려

경향신문 보도를 계속 이어가보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총청에도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23%로 1위를 차지했다. 총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출생지이다. 또한 호남에서도 선두를 되찾았다. 탄핵 정국에서 ‘20%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내년 1월 귀국을 앞두고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면서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민브리핑 1월 16일 대대적인 개편 단행합니다

탄핵으로 달리는 헌재

경향신문 박한철 “탄핵, 신속 결론 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3일과 5일 1·2차 변론에 이어 10일에도 3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 또한 헌재재판부는 “탄핵심판은 100% 형사소송처럼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변호인단 측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한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경향신문 헌재, 최순실 등 증인신문 속도전

헌법재판소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어서 사실상 최순실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윤전주 행정관도 신문할 예정이다. 심리가 빨리 진행되자 대통령 박근혜 측은 재판부에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핑계를 댄 것인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마지막 날, 광화문 광장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적폐청산!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

5시 30분 송박영신 발언대
7시~8시 본집회
8시~9시 30분 송박영신 콘서트
9시 30분~11시 행진
11시 보신각 퍼포먼스

박근혜는 하야야
박근혜 퇴진!
10차 범국민행동
김상병 연구회

bisang2016.net | 후원계좌 : 농협 302-1066-1087-11 이승철